



보도자료

2025. 5. 22(목)

고상진 빛의혁명 시민본부 행정지원팀장(010.3654.8525)

서울대인 230명, ‘진짜 대한민국’ 염원하며 이재명 지지선언

-서울대 동문·교수·재학생 참여…12.3 사태, ‘내란’으로 규정

-“광장 정신 계승해 민주주의 회복의 주체 되겠다” 선언도

-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서울대 교수·동문·재학생 등 230명이 참여한 ‘진짜 대한민국을 염원하며 이재명을 지지하는 서울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대민주동문회 빛의혁명 특별위원회가 주관하고, 김명원 서민동 비상시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정병문 서울대민주동문회 공동회장, 정동영 빛의혁명시민본부 본부장, 김현정 수석부본부장, 류태선 긴급조치사람들 상임이사, 장민수 서울대 농대 재학생 등이 순차로 발언에 나섰다. 이번 선언은 원로와 청년 세대가 함께한 ‘세대 통합형 지지선언’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 대표 발언에 나선 정병문 서울대민주동문회 공동회장은, 윤석열 정권의 12.3 사태를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절체절명의 순간, 거리와 캠퍼스를 지켜낸 시민들의 민주주의 수호 정신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12.3 내란을 정당화하는 반민주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이번 대선을 시민주권 실현과 광장정신의 제도화로 연결하겠다는 결의, ▲민생과 정의, 책임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 정동영 본부장은 “국사학과 72학번으로, 입학하자마자 계엄령을 맞이했던 기억이 있다”며 “지난 6개월 동안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나라를 막다른 길

목으로 몰아넣은 윤석열의 역사 인식이 동문으로서 부끄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싸움은 권력 쟁취가 아닌 헌정 회복의 투쟁이며, 서울대의 결단은 그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현정 수석부분부장은 “서울대 구성원들이 공개적으로 내란을 규탄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밝혔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경진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김현철 전 서울대 교수, 양춘승 국민주권연구원 이사장, 류태선 긴급조치사람들 상임이사, 정병문 서울대민주동문회 공동회장, 김명원 서민동 비상시국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민수 서울대 농대 재학생 등 서울대 동문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했고, 서울대 교수·동문·재학생 등 총 230명이 서명으로 함께했다. /끝/



■ 선언문 및 자료 첨부

진짜 대한민국을 염원하며 이재명을 지지하는 서울대인 선언문

우리 민주 서울대인은 2024년 12월 3일,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한 윤석열 일당이 벌인 친위 쿠데타 내란이라는 절체절명 위기 순간, 이 땅의 주권자인 시민들과 함께 거리와 캠퍼스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응원봉으로 어두운 거리를 밝히며, 폭력 앞에 맨몸으로 저항하고, 무도한 권력 앞에서도 멈추지 않은 발걸음으로, 차가운 바닥 위에서 밤을 지새운 연대로, 그날 주권을 다시 일으킨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광장에서 시민 모두와 함께 세운 그 정신과 결기를 잇고 사회대개혁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며, 아직도 시시때때 고개를 내미는 내란 잔당을 박멸하여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완수하고자 우리 민주 서울대인은 빛의 혁명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12.3 내란을 비호하는 모든 비민주 세력을 박멸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이번 선거를 시민 주권의 완성과 광장의 정신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 이를 실현시키고자 민주시민의 머슴이기를 천명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민생이 숨 쉬고 정의와 책임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나서겠습니다.

시민이 곧 주권자입니다. 시민이 진짜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이 정신으로 우리 민주 서울대인은 진짜 대한민국의 첫발을 내딛는 첫걸음으로 이재명 지지 서명 선언을 선포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진짜 대한민국을 염원하며 이재명을 지지하는 서울대 사람들

기 획 안

취 지 : [서민동 빛의 혁명 특별위원회]

- 1) 미래를 향한 담대한 선택 : 다가올 5년, 우리 공동체의 명운을 바꿀 ‘하늘이 내린 때!’
- 2) 진짜 대한민국 향하여 : 이제 낡은 시대를 접고 한뜻으로 ‘참개혁’을 외치자!
- 3) 지금은 결단의 순간 : 다음 세대의 삶도 우리 손에!
- 4) 변화의 시작 : 뒷날, 역사는 오늘을 기록한다.

이런 인식 위에서 내린 세력을 척결하고 민주와 평화가 넘치는 살기 좋은 진짜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일 시: 2025년 5월 22일(목) 16시 30분

장 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서울특별시 국회대로 68길 7)

주 관: 서민동 빛의 혁명 특별위원회

- 순 서 -

- 사회 : 김명원 서민동 비상시국 특별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 취지 설명과 참석자 소개 : 사회자
 - 대표발언 : 정병문 서울대민주동문회 공동회장
 - 연대발언 : 정동영 빛의혁명시민본부 선대본부장
 - 회견문 낭독 : 류태선 긴급조치사람들 상임이사
장민수 서울대 농대 재학생
 - 지지발언 : 성준후 빛의혁명시민본부 상근부분부장
 - 폐 회

※ 참석자:

- 백경진(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 한덕희 (김종태기념사업회 감사)
- 윤조덕(전 한국노동연구원 위원)
- 남명진 (전 가천대교수)
- 이인형 (전 기획시대 대표)
- 이기호 (서민동 산악회)
- 이정우 (서두레 협동조합 상임이사)
- 김명원 (서민동 비상시국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정병문 (서울대민주동문회 공동회장)
- 김현철 (전 서울대 교수)
- 정희선 (메아리 고문)
- 양춘승 (국민주권연구원 이사장)
- 류태선(긴급조치사람들 상임이사)
- 연성만 (희망나누기 이사장)
- 장민수 (서울대 농대 재학생)
- 박석두 (김상진기념사업회 고문)
- 이병호 (김상진기념사업회 전 회장)

※ 서명자: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백경진 외 230명